

## (2016. 8. 27 시행) 국가직 7급 기출문제 [국어 해설]

[안 한 섭 선생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

### 문 1.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대화는 열기를 떨기 시작했다.
- ②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 ③ 아침에 찌은 쌀이라서 밥맛이 정말 고소하군요.
- ④ 아침부터 오던 비가 개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정답 ②

해설: ‘깃들다’와 ‘깃들이다’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깃들다’는 ‘거리에는 어느새 황혼이 깃들었다.’처럼 ‘아늑하게 서려 들다.’를 뜻하거나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처럼 ‘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스며들다.’를 의미한다.

‘깃들이다’는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나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 잡다.’를 의미하므로 ‘까마귀가 버드나무에 깃들었다’나 ‘이 마을에는 김씨 성의 사람들만 몇 대째 깃들여 산다’처럼 쓸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은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를 의미하므로 맞는 문장이다.

오답 해설

- ① ‘떠다’는 ‘뜨이다’의 준말로 ‘간밤에 늦게 잤더니 아침 늦게야 눈이 뜨였다./사람들이 드문드문 눈에 뜨였다.’처럼 쓰인다. 반면, ‘떠다’는 ‘두르다, 지나다, 나타내다’를 의미하므로 ‘허리에 띠를 띠다./추천서를 띠고 회사를 찾아가라./중대한 임무를 띠다/얼굴에 미소를 띠다’처럼 쓰인다. 따라서 ①번의 ‘떠기’는 ‘떠기’로 고쳐야 한다.
- ③ ‘찡다’는 ‘곡식 따위를 쭈거나 빵으려고 절구에 담고 공이로 내리치다.’는 뜻이므로 ‘찌은’은 ‘찡은’으로 고쳐야 한다.
- ④ ‘개이다’는 틀린 말이다. ‘개다’로 써야 한다.

### 문 2.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숨이불[숨 : 니불]
- ② 직행열차[지캐열차]
- ③ 내복약[내 : 봉낙]
- ④ 막일[망닐]

정답 ②

해설: ‘ㄴ첨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음 시 ‘ㄴ첨가’하는 경우는 “파생어,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유’가 오면 ㄴ첨가해서 ‘니, 냐, 녀, 뇨, 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행열차’는 ‘ㄴ첨가’를 해야 하므로 [지캐널차]로 발음해야 한다.

### 문 3.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功過)를 기록하는 전기(傳記) 형식의 글을 ( )이라고 한다. 거북.대나무.지팡이.술.돈 따위의 동물이나 식물, 생활에 필요한 물건 같은 사물을 의인화해 그 생애를 서술한다.

- ① 평전(評傳)
- ② 열전(列傳)
- ③ 가전(假傳)
- ④ 실전(實傳)

2016. 기출문제 해설

정답 ③

해설: 가전에 대한 설명이다. ‘가전체’라고도 한다.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임춘(林椿)의 <국순전>, <공방전>이나 이규보(李奎報)의 <국선생전>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문장은?

- 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채언(贅言)에 불과하다.
- ② 한학의 온축(蘊蓄)을 문학작품의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 ③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을 야기(惹起)하였다.
- ④ 귀국한 동생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단취(團聚)가 실현되었다.

정답 ③

해설: ‘야기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혼란을 야기하다, 오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다.’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준다.’는 뜻을 지닌 ‘방증(傍證)하다’ 정도가 어울린다.

오답 해설:

- ① 채언(贅言):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 ② 온축(蘊蓄): 오랫동안 학식 따위를 많이 쌓음. 또는 그 학식
- ④ 단취(團聚):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

문 5.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②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 ③ 1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 ④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정답 ①

해설: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 ‘소개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다. 따라서 ‘소개하다’로 고쳐야 한다.
- ③ 1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잘못 구성되었다. ‘수비가 불안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로 고쳐야 한다.
- ④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 ‘휴대’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을 의미하므로 ‘장비 따위에 장치를 부착한다’는 뜻의 ‘장착(裝着)’으로 고쳐야 한다.



문 8. ㉠~㉣의 표제어에 적합한 한자 표기는?

- |   |
|---|
| ㉠ 유세: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
| ㉡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
| ㉢ 탐본: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

- | ㉠    | ㉡  | ㉢  |
|------|----|----|
| ① 遊說 | 徂歲 | 拓本 |
| ② 遊稅 | 租稅 | 搨本 |
| ③ 誘說 | 徂歲 | 搨本 |
| ④ 誘說 | 租稅 | 拓本 |

정답 ②

해설:

유세(遊說):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조세(租稅):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탐본(搨本):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또는 그렇게 떠낸 종이, 탁본(拓本)과 같은 말

오답 해설:

유세(誘說): 달콤한 말로 꺾

조세(徂歲): 지나간 해. 또는 지나간 시절.

문 9. 우리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라매’와 ‘수라’는 몽고어에서 유입된 말이다.
- ②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 ③ 15세기부터 주격 조사 형태 ‘가’가 나타나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 ④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난다.

정답 ③

해설: 15세기 중세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이/ㅣ’가 사용되었고, 주격 조사 ‘가’는 임진왜란 이후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서 그 이후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말’, ‘매’, ‘수라’ 들은 몽고어에서 유입된 말이다.

② 모음조화 현상은 중세국어에서 엄격하게 나타났다.

④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난다. 그것은 오늘날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문 10. 다음 글에서 ‘신(臣)’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臣)이 부영(傅榮)에게 말하였습니다.  
 “수차(水車)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수차를 보았습니까?”  
 “지난번 소흥부(紹興府)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이 호수 언덕에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적게 들이면서 물을 많이 퍼 올리더군요. 가뭄에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차는 물을 푸는 데만 사용될 뿐이니 배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논이 많은데 자주 가뭄이 들지요. 만약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만 수고해 가르쳐주면, 우리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이 생길 것이요. 그 제작법을 잘 알아보시되 모자란 점이 있으면 뺏사람들에게 물어서 정확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최부, 표해록 -

-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 ③ 이용후생(利用厚生)
-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정답 ③

해설: “어떤 사람이 호수 언덕에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적게 들이면서 물을 많이 퍼 올리더군요. 가뭄에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와 “만약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으므로 기구를 편리하게 써서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한다는 내용이 답이다.

오답 해설:

-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룬 것으로, 중국 청나라 고증학의 학문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실학파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③ 이용후생(利用厚生):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문 11. 전화를 사용할 때,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녜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 ②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③ 지금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④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답 ①

해설: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는 말은 잘못 걸린 상황의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린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도가 없는 피동 표현을 써서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정답 ②

해설: 문단 순서는 지시어나 접속어를 먼저 본 다음에 인접 문단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나) 문단이 힌트이다. “(나) 그러나 욱은 특수 용어가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그 앞에는 특수 용어에 대한 내용이 와야 한다. 그러므로 (나) 앞에는 (라)가 와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답은 ②③④로 좁혀진다. 또한 “(다)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학생들이 귀에 담기에 힘든 폭언을 내뱉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에서 폭언(욕)을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 앞에는 욱을 하는 것이 와야 한다. 따라서 (다) 문단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 그리고 “(가) 그들이 집회에서 내뱉는 폭언은~”이라고 했으므로 (가) 앞에는 집회에서 폭언을 한 것이 와야 하므로 (가) 앞에는 (다)가 와야 한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문 14. ‘고공’이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살림살이 하려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畝)을 기경(起耕)하니  
 올벼논 텃밭이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밥 사발 크나 작으나 동웁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줄어지게 되었는데  
 옛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느냐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① ㉠: 태조 이성계
- ② ㉡: 조선 팔도
- ③ ㉢: 임금
- ④ ㉣: 왜적

정답 ③

해설: ‘호수(戶首)’는 ‘호의 우두머리’이므로 문맥적으로 ‘지방 수령’을 의미한다. 참고로 고공(雇工)은 ‘머슴’을 말한다. ‘고공가’는 조선 중종 때에, 허전(許堧)이 지은 가사(歌辭)로, 당시 국정의 부패와 무능을 임금의 처지에서 개탄하고, 만조백관을 머슴에 비유하여 부지런하고 검소하기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췌기였다. —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빼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르렁거르렁하였다.  
 …(중략)…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인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데 부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 ①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나 있다.
- ②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
- ④ 행운과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처음 부분을 보면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는 설명을 틀린 것이다. 전지적 시점에 해당하므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나 있다. → 처음 부분
- ②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 설령탕
- ④ 행운과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 처음 부분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

2016. 기출문제 해설

- ①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4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독백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음보’는 ‘끊어 읽는 마디’를 뜻한다. ‘4음보의 반복’이 맞는 말이라면 4번 끊어 읽어서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음보율이 없다. 굳이 말하면 ‘3음보의 변조’ 또는 ‘대체로 3음보’라고 할 수 있다.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文學教育論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 같은 움직임은 주로 文學教育이 강화되면 國語科教育이 陳腐한 敎訓을 앞세운 道德主義修身敎科로 轉落될지 모른다거나 혹은 文學少年少女의 感傷癖을 만연시키지나 않을까하는 의구심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科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이들의 주장인즉, “文學活動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言語活動 중의 한 類型에 불과하며, 文學作品이 國語科의 敎材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文學이 國語敎育의 核心은 될 수 없다. 國語敎育은 어디까지나 言語敎育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의 形式陶冶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用具的, 提報的인 것으로만 보고 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 ① 문학을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③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이 될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 ④ 국어교육은 언어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중심 내용은 맨 앞이나 맨 뒤, ‘그러나’ 뒤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뒷부분을 보면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의 形式 陶冶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用具的, 提報的인 것으로만 보고 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라고 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다룰 때 언어(言語) 기능(技能)의 형식(形式) 도야(陶冶)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고, 언어의 본질을 용구적(用具的), 제보적(提報的)인 것으로만 보고 감화적(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으므로 문학을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18. ㉠~㉣의 문장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흐린 게 비가 올런지 몰라 우산을 미리 챙겨나갔다. ㉡길을 나서자 갑자기 곧 해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 입구에는 앓된 소녀들이 우산을 들고 왈자지껄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소녀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이 두루뭉술하게 떠올랐다.

2016. 기출문제 해설

- ① ㉠의 ‘올린지’는 표기법에 맞게 ‘올른지’로 고친다.
- ② ㉡의 ‘해님’은 표기법에 맞게 ‘햇님’으로 고친다.
- ③ ㉢의 ‘엣된’은 표준어에 맞게 ‘엣띤’으로 고친다.
- ④ ㉣의 ‘두루뭉술하게’는 의미상 자연스럽게 ‘어렵풋이’로 고친다.

정답 ④

해설: 두루뭉술하다는 ‘모나거나 튀지 않고 둥그스름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따라서 ‘어렵풋이’로 고친다는 설명은 맞는 말이다. ‘어렵풋이’는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의 ‘올린지’는 표기법에 맞게 ‘올른지’로 고친다. → 올는지
- ② ㉡의 ‘해님’은 표기법에 맞게 ‘햇님’으로 고친다. → 해님
- ③ ㉢의 ‘엣된’은 표준어에 맞게 ‘엣띤’으로 고친다. → 엣띤

문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냐 혹은 이타적이냐 하는 이분법적 질문은 흑백논리를 지양하고 ( ㉠ ) 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그저 지적 호사가들의 관심이나 끝 법한 낡은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 ㉡ ) 을/를 품어볼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생각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답변도 대체로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맡아 왔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의 원천으로서 인류의 삶에 훌륭한 ( ㉢ ) 이/가 되어온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 ㉣ ) 되었다는 근원적 한계를 갖는다.

- |       |    |    |    |
|-------|----|----|----|
| ㉠     | ㉡  | ㉢  | ㉣  |
| ① 다원성 | 의문 | 전범 | 착중 |
| ② 다양성 | 회의 | 지침 | 고착 |
| ③ 중층성 | 질문 | 모범 | 연루 |
| ④ 융합성 | 반문 | 통찰 | 편향 |

정답 ②

해설: ( ㉠ ) 앞에 “흑백논리를 지양하고”라고 했으므로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의미하는 ‘다양성(多樣性)’이 적당하다. ( ㉡ )에는 ‘의심스럽게 생각함.’을 뜻하는 ‘의문(疑問)’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을 뜻하는 ‘회의(懷疑)’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의심을 품다는 중복된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의문’이 더 적당하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심을 품다’가 맞는 용례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중복된 표현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 ㉢ )에는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인 ‘지침(指針)’이 적당하며, ( ㉣ )에는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에 집착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됨’을 뜻하는 ‘고착(固着)’이 적당하다.

오답 해설:

- 다원성(多元性): 근원이 많은 특성.
- 중층성(中層性): 여러 층으로 된 성질.
- 융합성(融合性):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성질.

2016. 기출문제 해설

- 질문(質問):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
- 반문(反問):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며 질문함.
-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 모범(模範):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 통찰(洞察):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 착종(錯綜): 이것저것이 뒤섞여 엉클어짐.
- 연루(連累):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
- 편향(偏向): 한쪽으로 치우침.

문 20.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페니실린은 약품으로 정제된 이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세균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사용이 잦아지자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항생제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균만 골라 죽이는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겨내는 세균들이 계속 등장했다. 플레밍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니실린에 내성인 세균이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 구균이 곧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은 메티실린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의 길이 열렸다. 메티실린은 포도상 구균을 물리치며 맹활약했지만 세균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메티실린의 효과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들이 등장했고, 이에 인류는 반코마이신을 개발해 탈출구를 열었다. 이들 치료제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그람음성세균은 카바페넴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도 등장했다.

- ①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 ② 항생제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 ③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 ④ 앞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다.

정답 ③

해설: 마지막 문단은 ‘이를테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보조 문단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체 문단이 아니다. 중심 내용이 들어있는 문단은 둘째 문단이며, 중심 생각은 둘째 문단 마지막인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식이다.”이다. 그러므로 이 글 맨 마지막에 “하지만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도 등장했다.”라고 했으므로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은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는 내용이 올 것임을 알 수 있다.